

전주시 신중년 정책 통합 운영 및 전주50플러스 플랫폼 구축 제안

전주시는 현재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평생학습관의 50플러스 관련 프로그램 등이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년 입장에서는 취업, 창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평생학습이 서로 연결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담당 기관과 신청 절차가 달라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얻기 어렵고 참여 과정도 복잡합니다.

이에 전주시도 서울시의 50플러스재단, 수원시의 신중년 지원체계와 같이 신중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주50플러스 플랫폼 또는 전주시 신중년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 세대는 단순히 일자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1. 재취업 2. 창업 3. 사회공헌활동 4. 자원봉사 5. 평생학습 6.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사업별로 분산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운영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주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면 신중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사업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신중년 정책을 단순한 일자리 지원이 아닌 인생 2막 종합지원 정책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같은 전주형 50플러스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나누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